‘우리 미술’이던 전통 채색화 재조명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9월25일까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등 작가 60여 명 참가
민화 · 종교화 · 궁중회화 · 창작민화 등 80여 점 전시
한국미술사에서 소외됐던 가치 · 역할 재조명 기회로
교훈 · 감상 · 벽사 · 길상 등 4주제 6개 분야 구성해
19~20세기작서 20세기 후반기 창작민화까지 총망라


성파, 수기맹호도, 2012, 패널에 옻칠, 162×570cm, 작가 소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의 전통 채색화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은 9월 25일까지 과천에서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를 개최한다.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전통 채색화의 가치와 근대 이전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민화와 궁중회화, 종교화, 기록화 등을 아우르는 한국의 채색화는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벽사), 복을 불러들이며(길상), 교훈을 전하고(문자도), 중요한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고자(기록화)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전통회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선시대 이후 문인들의 수묵 감상화 위주의 미술사 서술이 주류를 이루면서 장식과 기복의 ‘역할’을 지닌 회화를 순수예술로 보지 않았던 근대 이후 예술개념의 형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 미술사에서 소외됐다고 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최초로 채색화를 조명하는 이번 ‘생의 찬미’는 그동안 한국미술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한국 채색화를 대중에게 선보이고 재조명하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채색화의 전통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각 역할별로 19~20세기 초에 제작된 민화와 궁중장식화 그리고 20세기 후반 이후 제작된 창작민화와 공예, 디자인, 서예, 회화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 80여 점으로 구성됐다.

전시에는 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강요배, 박대성, 박생광, 신상호, 안상수, 오윤, 이종상, 한애규, 황창배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6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송규태, 오순경, 문선영, 이영실 등 현대 창작민화 작가 10여 명도 참여한다.

전시는 전통회화의 역할을 ‘벽사’와 ‘길상’, ‘교훈’과 ‘감상’ 네 가지 주제와 6개 분야로 구성했다.

△첫 번째 ‘마중’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벽사 이미지인 처용을 주제로 한 스톤 존스턴 감독의 영상 ‘승화’로 시작한다.

△두 번째 ‘문 앞에서: 벽사’에서도 길상의 첫 역할인 벽사의 의미를 담은 도상들로 시작한다. 신상호 작가의 ‘Totem(토템상)’을 시작으로 ‘욕불구룡도’와 ‘오방신도’, ‘호작도’, 성파 대종사의 ‘수기맹호도’와 같은 전통적인 도상들이 한애규 ‘기둥들’, 오윤의 ‘칼노래’ 등과 함께 선보인다.

성파 대종사의 ‘수기맹호도(2012, 패널에 옻칠, 162×570cm, 작가 소장)’는 민화 ‘대호도’를 재해석한 그림으로, 자다가 깨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위풍당당한 호랑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옻칠 작품이다. 성파 대종사는 “‘대호도’는 일제강점기에 식민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분연히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며 “이 시대의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형 옻칠 화면으로 ‘수기맹호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성파 대종사는 통도사 서운암에 주석하며 ‘16만 도자대장경’을 조성하고, 옻칠 불화, 민화 작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정원에서: 십장생과 화조화’에서는 ‘십장생도’ 병풍과 함께 김혜경의 영상 작품 ‘길상’, 전혁림의 ‘백낙병’, 김종학의 ‘현대모란도’, 손유여의 ‘모란숲’, 홍지윤의 ‘접시꽃 들판에 서서’ 등 전통적인 길상화인 십장생도와 모란도 등 19세기 말 작품부터 길상 도상의 의미와 표현의 확장을 모색해 온 최근 회화와 영상을 선보인다.

△네 번째, ‘오방색’에서는 높은 층고의 열린 공간인 중앙홀에 2개의 작품을 전시한다. 모두 오방색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김신일의 설치작품 ‘오색사이’와 이정교의 거대한 네 마리 호랑이 작품 ‘사 · 방 · 호’를 선보인다.

△다섯 번째 ‘서가에서: 문자도와 책가도, 기록화’에서는 정원을 지나들어간 어느 서가에서 만난 책과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 공간에서는 8명의 작가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문자도와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는 ‘매화 책거리도(8폭 병풍)’를 포함한 다양한 책가도,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격변의 시기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기록화들을 선보인다.

△마지막 ‘담 너머, 저 산: 산수화’에서는 서가를 나와 다시 정원에 들어서며 보이는, 담 너머 펼쳐진 산수화로 구성됐다. 다른 채색화 분야와는 다르게 감상화로 분류되어 중앙화단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산수화의 다양한 변주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최초로 온라인상에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트윈 전시 공간을 구축하여 실제 전시장 관람이 어려운 전국의 관람객들이 집에서 PC나 휴대폰으로도 전시를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온라인 전시 관람을 넘어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특화된 디지털 미술관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전통 채색화의 국내 현대미술계에서의 위치와 근대 이전의 역할을 조명해보고자 마련한 특별전”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채색화가 다시 도약하고 한국회화사에서 균형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시의 의미와 취지를 밝혔다.

김경호 사경전 ‘묘법연화경 권제1’

한국전통문화전당 6월 14~20일
4년간 사성한 ‘묘법연화경’ 전시
2018년 입제한 사경 7년 결사 중


감지금니(법화경약찬게)–34.0, 186.5cm (26.1, 178.5cm) 경문(26.1, 178.5cm) 위태천(23.9, 15)

사경장 김경호가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사경전 ‘묘법연화경 권제1’을 개최한다.

김경호 사경장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묘법연화경’ 역시 0.1mm 붓으로 1000시간 이상 초집중하여 조성한 작품이다.

김경호 사경가는 2018년 6월 6일, 8인의 도반과 ‘묘법연화경’ 사경 3년 결사를 입제했다. 결사를 시작한 김경호 사경장은 처음 계획보다 더욱 수승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최상의 법사리로 사성하기 위해 해제일을 늦추기로 했다.

사성 기간을 2배로 연장하고 매년 1권씩의 성료를 목표로 정진한다는 계획이다.

결사는 7년 결사가 되어 2024년 12월 31일에 해제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김경호는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됨에 따라 매년 공개행사를 개최하고 가급적이면 기획행사도 가질 계획을 세웠다. 이들 행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사성한 ‘묘법연화경’(권제1, 권제3, 권제4, 권제5) 4권을 우선 공개행사(전시) 시 1권, 기획행사(전시) 시 1권씩 대중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개행사와 기획행사는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전시와 함께 공개되는 작품 ‘묘법연화경’ 1권씩을 전시해 도록 겸 교본 시리즈로 발행한다.

김경호 사경가는 한 점 한 획을 부처님 상호로 생각하고 한 글자 한 글자를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수행으로 여기며, 가장 이상적이고 원만한 법신 부처님 상호로 모시고자 정진했다.

〈묘법연화경〉 권제1 한 작품만 해도 약 1만의 부처님을 조성한 셈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1호 사경장 공개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백지묵서 〈묘법연화경〉 권제1을 중심으로 하며, 이번 전시부터 13명의 전수교육생들의 작품 26점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전통금니사경의 제작과정 동영상을 상영하고 금니은니 장엄경 사경의 재료 및 도구도 전시한다. 문의 (063)281-1563.

박재완 기자

봉 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844주년 기념
제17회 추모 다례재 및 경로위안행사

귀의 삼보하옵고

사단법인 진각국사선양회에서는 불향인 전남 화순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진각국사 혜심 탄신 844주년을 맞아 제17회 다례재 및 경로위안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화순문화원에서 봉행되는 다례재는 진각국사 혜심의 큰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화순군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봉행되는 이번 행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6월 24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화순문화원 들국화실
■ **주최** : (사)진각국사 선양회
■ **후원** : 화순군 Hwasun-gun 화순군의회 Hwasun-gun Council
■ **협찬** : 화순읍 유천리 벽오동 보리밥. 화순군 동면 예작 식당, 화순 초등학교 제37회 동문회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20 H·P 010-2971-4646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범석수불 대율사 (전,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갈마아사리 관허수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교수아사리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 및 교수사)
존증아사리 심산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존증아사리 원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존증아사리 혜성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